

프랑스의 科學技術政策

金 虎 起 (駐佛韓國大使館科學官)

전통적으로 국부의 기초를 농업에 두어 왔던 불란서는 제 2 차대전 이후 드골의 집권을 전후하여 국가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업기술진흥에 눈을 뜨기 시작하여 과학기술연구체제를 재정비하고 원자력, 우주항공, 정보산업등 대형과제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오늘날 여러분야에서 세계첨단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기간중에 미래 지향적 과학기술연구와 관련된 산업에 1천억프랑이나 투자될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불란서의 과학기술행정조직으로는 총리직속의 연구담당국무성 밑에 과학기술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연구총무청(DGRST)이 설치되어 있다. DGRST에는 일반행정각국과 이나라의 분야별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구기관별 예산을 책정하는 10여명의 심의관이 있다. 이 심의관들은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충원되며 대부분이 저명대학의 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분야별 연구기관들은 그 특성에 따라 관련부처의 산하에 있으나 그 연구비만은 DGRST가 총괄하여 결정하는 것이 불란서의 연구예산제도의 특징이다.

불란서정부출연연구비의 형태는 다음 세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원자력, 우주항공등 대형과제에 관한 연구비는 관련부처를 통하여 책정 지급된다. 둘째로 DGRST의 연구예산으로 "Enveloppe-recherche"와 연구기금("Fond de recherche")가 있다. 이중 중요한 부분이 전자로 기술수준을 이루게 된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 8 차계획에서는 과학기술연구의 세계첨단수준의 유지가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서 이는 대형과제를 제외한 모든 연구를 위한

예산으로 DGRST가 연구자나 기관의 소속부처에 관련없이 총괄하며 심의관들에 의한 분야별 수준, 국가경제 및 사회에의 기여도등의 평가를 거쳐 예산담당부처와 협의한 후 결정하며 일단 확정된 "Enveloppe-recherche"의 배분은 DGRST의 전권으로 되어 있다. 후자의 기금은 산학협동의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같은 연구과제를 학계, 산업계에 따로 수행시키는 방식과 산학협동연구팀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셋째로 기초연구는 대학성산하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와 각 대학에서 수행하며 이중 CNRS의 연구 예산은 DGRST의 "Enveloppe-recherche"의 일부로 총당된다. '80년도 불란서의 과학기술연구비 총액은 430억프랑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민간연구비가 190억, 정부출연연구비가 240억프랑을 차지한다. "Enveloppe-recherche" 총액은 148억프랑으로, 이중 기초연구비가 38억, 응용연구비가 110억프랑이다.

이러한 연구예산 설정에는 정부가 정하는 분야별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작년 중순 공업성은 불란서의 기술수준 세계시장의 전망, 산업에서의 중요성등을 검토한 결과 (1) "Bureautique" (2) 전자, (3) 로봇 (4) 생물 (5) 해저개발 (6) 에너지절약용 기자재등 6개분야를 최우선분야로 지정한바 있다. 불란서는 국제경쟁력제고에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두어 전술한 행정 및 예산의 뒷바침이 따르고 있으나, 전통적인 국수주의 중앙집권 체제, 행정가양성위주의 엘리트교육제도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연구 및 교육기관의 지방분산, 콤플렉스대학등의 실험공과대학교육실시로 어느정도 불식되고 있으나 80년대를 통해 계속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